

看護員과 유니폼

서울시 지부장

윤 수 복

간호원의 복장은 古代 修女들의 복장에서 起因하여 變形된 것으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 간호 사업의 상징이 되는 동시에 위생적인 目的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캡, 복장, 구두, 이 세가지를 합쳐 유니폼이라 부른다고 생각한다.

간호정신을 상징하는 캡

캡의 유래는 초대 기독교의 종교 의식에서 온 것이나 責任感과 順潔과 奉仕의 아름다운 精神.

人類愛를 主眼으로 한 이 간호정신은 간호원의 生活과 職業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내 一生을 순결하게 살며 내 직무에 충성할 것을 하나님과 여기 모인 여러분께 삼가 서약하나이다”라고 선서하는 엄숙한 儀式을 통해서 캡을 쓰게 되고, 캡을 쓰고서야 만 비로서 人間の 生命과 福祉를 위해 科學的인 原則과 技術로써 행하

여지는 환자 간호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캡을 간호 制服에서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실수나 과오를 범했을 때 캡을 뺏기는 制度까지 있었던 것이다. 이 意味深長한 캡이 흐트러진 머리에 놓여졌을 때 보는 사람의 網膜에 비치어진 반응을 생각해 보자.

머리모양은 그 옷차림에 따라 보는 사람에게 느낌이 다르리라고 생각된다.

느러트러진 머리, 틀어올린 머리 등은 장소와 옷차림에 따라 아름다운 느낌이 다른 것이다. 캡에 어울리는 머리는 캡이 지닌 意義에 맞는 머리, 즉 위생적인 의미가 포함될 머리 모양은 간편하고 단정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다(완고한 생각이 라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美를 무시한 머리 모양이 아니라 짧게 단정하게 자기 얼굴에 맞게 손질한 머리에 쓴 캡은 민첩하고 잘

끔하게 보여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준다. 이와 반대로 금시 자리에서 일어난듯 부시시한채 손질도 하지 않은것 같은 흐트러진 머리, 길고 느러진 머리에 쓰여진 캡은 그 캡이 가지고 있는 意義는 커녕 묘사이 흔히 보는 음식점 여종업원을 연상케 되며 女性의 美조차 찾을 수 없는 인상을 받게 된다. 머리가 무거워 보이고 일하려는 의욕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인다.

복 장

복장은 순전히 위생적인 의미가 더 많이 포함 되었다고 본다.

自身の 보호와 환자의 건강을 위해 활동적이며 간편한 모양으로 깨끗한 것을 입어야 할 것이다. 흰 복장이 회색으로 착각할만치 더러워진 것이나 이곳저곳에 약물이 묻어 얼룩진 복장, 또 적거나 커서 몸에 맞지 않아 남의 것을 빌려 입은 것 같은 모양, 가지각색의 內衣를 터지도록 끼입어서 뻣죽히 내보이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질척척 못한 인상, 게으른 인상을 주게 된다. 自己自身도 깔끔히 가꾸지 못하는 간호원이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어느정도 부지런히 효과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전차나 버스 속에서 깨끗한 옷차

림을 한 노인이나 어린이가 옆에 오면 자리를 조여서 같이 앉고 싶은데, 때물은 옷에 더러워 보이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오면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나서 피하게 되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질병 예방은 청결에 있다고 하면 청결은 自身の 生活에서부터 실천해야지 환자 및 그 주위, 병실 등을 깨끗히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간호원이 자신의 옷차림이 그 모양이어서야 어떻게 관리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못난 사람이라도 의복을 잘 입으면 잘나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옷차림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 고상하게 또는 야비하게 보이는 것도 옷차림에 따라서 주는 느낌일 것이다.

구 두

환자의 건강증진, 생명보호, 안위를 위하여 일하는 간호원의 구두는 이 모든 點을 고려하여 굽이 높고 소리 나는 구두는 신는 것을 禁하고 있다. 驪音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불안과 초조를 주는데 하물며 환자에게 주는 害는 막대한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는 환자에게 간호원과 의사의 구두소리, 둔 소리가 얼마나 신경을 자극하며 불안과 피로움을 더해 주는지 간호원은 알고 있어야 될 줄 안다. 굽높

은 구두, 소리나는 구두를 신고 어떻게 환자에게 정신적 안위를 줄 수 있으며 자신이 피곤을 느끼지 않고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겠는가? 건강을 고려한 적당한 높이에 소리나지 않는 白色 구두가 구미 선진국에서도 간호원 구두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유행에만 도취되어 굽높은 소리나는 구두를 신고 어떻게 참다운 간호정신에서 행동하는 간호원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스텝퍼나 운동화를 맨발에 뒤를 밟아 신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보는데 이것은 피곤은 덜어줄지 모르나 줄줄 끌고 다니는 모양은 위신과 무게가 없어 보인다.

☆ ☆ ☆

나는 최근 어느 종합병원에 갔다가 정말 天使(머리에서 발 끝까지) 같은 인상을 주는 깨끗하고 단정한 간호원들의 모습을 보고 복장을 세탁실에서 대려 주느라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대려나는 대답이었다. 보는 나로 하여금 유니포움을 다시 입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병원 전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더러운 복장을 입고 있으면 창피감을 느끼게 되고 어울리지 않아서 배겨나지 못 할 것이다. 적은 병원들이 시설이 不足하고 매우가 나쁜 줄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위 환경과

시설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좀더 부지런하면 가능 하리라 생각한다. 깨끗하고 두껍살 없는 흰 복장에 피고 뺏뺏한 캡을 단정히 머리에 쓰고 깨끗히 손질한 白色 구두를 신은 간호원들의 모습은 아픈 환자에게 상쾌하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줄 것이며 관계되는 모든 직원과 보호자들에게는 신뢰감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범할 수 없는 위압에 높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물론 내적으로 텅 빈 의도만을 말함은 아니다. 그러나 內的面이 아무리 充實하더라도 외모가 구질구질하면 그 內的實力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체험하는 사실이다.

겉으로 보기에 天使같은 모습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봉사적 정신으로 나타나는 말씨와 행동, 科學的 原理로써 숙련된 技術, 이 세가지가 합해서 간호정신의 極致를 이루게 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이 社會에서 올바른 인식을 받고 싶고 또 대우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갈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좀더 노력하여 自身の 품가질 부터 시작해서 모든 面에 이 極致를 나타나게 된다면 환자 간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어떤 PR 方法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우리 직업이 선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 ◇